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종두^{1*}, 석말숙²

¹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²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Effects of Ethical Consciousness on Job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Mediated Effects of Self-efficacy

Jong-Du Park^{1*}, Mal-Sook Suk²

¹Director of the Center, Jungnang-gu Developmental Disabled Lifelong Education Center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Nazaren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20년 한국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의 비율을 기반으로 서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512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연구했다. 연구는 IRB 승인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과 통계는 SPSS & AMOS 25.0를 활용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의 정(+)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증진을 위한 윤리의식에 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자기효능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와 실천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 사회복지사, 윤리의식,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사회복지시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effect of social workers' ethical consciousness on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ratio of the statistical yearbook of Korean social workers in 2020, the subjects of the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n 512 social workers working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eoul.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IRB approval. The analysis and statistics of this study used SPSS & AMOS 25.0. Bootstrapping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effect of social workers' ethical consciousness on job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was verified. In addition, the positiv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verified between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social workers on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systems and practices to support capacity building and promote self-efficacy for ethical awarenes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Key Words : Social workers, Ethical awareness, Job satisfaction, Self-efficacy, Social welfare facilities

*Corresponding Author : Jong-Du Park(pjd7777@hanmail.net)

Received October 16, 2022

Accepted March 20, 2023

Revised January 16, 2023

Published March 28, 2023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회적 문제해결과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특히, 취약계층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에 욕구가 높고[1],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2]. 이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서비스 욕구, 열악한 사회복지 근무환경,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스트레스를 겪어 낮은 직무만족을 보이기도 한다[3].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낮은 직무만족감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직무만족은 이직률 증가로 서비스의 질적 만족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4]. 또한, 낮은 직무만족은 근무의 연속성에 따른 불안정성 등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는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5].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와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 인상, 근무시간, 인력확보, 휴식, 대체휴무, 보수교육 등과 같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어려움, 서비스 실천 방법의 한계 등이 낮은 직무만족으로 이어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4].

한편,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며[6], 예측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을 윤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정한 가치를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7-8]. 이에, 이용자에게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윤리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만족감을 높이고, 높아진 서비스 만족감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스스로의 업무에 가치를 느끼고 긍정적인 직무의 만족을 가진다[9].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사회복지의 이념과 사명을 명시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인 실천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윤리적인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가치를 높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10-14]. 위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사가 윤리의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윤리적인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긍정적인 경험을 지원하며,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15].

자기효능감은 ‘할 수 있다’는 지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긍정적인 성취를 나타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윤리의식은 긍정적 경험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16]. 또한,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에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17-19]. 즉,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실천 경험은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역량강화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에 기여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에 전문성을 높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기에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증진에 관하여 윤리의식과 자기효능감을 근거로 연구코자 한다. 이에 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 수준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 수준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 수준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윤리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

윤리의식 및 직무만족은 선행관계를 통해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높은 윤리의식은 높은 직무만족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11,20,21], 조직 내 긍정적인 영향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12,22]. 특히,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 중에서 윤리의식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해소 영향이 있고[22], 윤리의식은 직무만족 증가를 통한 삶의 전반에 긍정적 만족감을 줌을 볼 수 있다[23]. 또한 윤리의식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쳐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다[11,24]. 위의 내용을 근거로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은 직무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 증가에 관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윤리의식과 직무만족 간의 영향을 확인코자 한다.

2.2 윤리의식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윤리의식은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대전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고[25],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와 자기효능감의 연구에서 윤리의식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이 있었다[26]. 또한, 사회복지 업무 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연구에서 윤리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했다[27].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윤리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이 있음을 검증했다[28]. 위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윤리의식과 자기효능감은 영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윤리의식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코자 한다.

2.3 윤리의식,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윤리의식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29].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15]. 하지만,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윤리의식과 직무만족 속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연구를 실천한 내용은 많지 않다. 이에 앞에서 확인한 윤리의식과 직무만족, 윤리의식과 자기효능감 관계 이외에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관계의 연구로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윤리의식,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으로 이어지는 매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윤리의식,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확인코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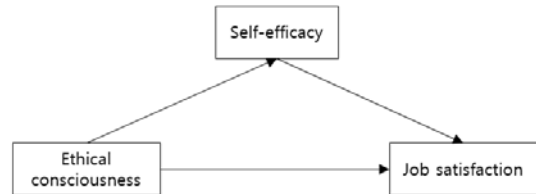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양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2020년 한국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의 비율을 기반으로 서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31.2%, 노인복지시설 17.4%, 장애인복지시설 18.8%, 아동복지시설 15.8%, 지역자활센터 16.8%)의 비율을 근거로 위 사회복지시설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512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연구했다. 온라인의 특성상 무응답은 없었으며, 관련 연구는 IRB 승인(승인번호 P01-202105-22-001)으로 2021년 5월부터 6월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서 소재지가 서울인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총 40개 시설에 협조공문과 모집공고문을 발송하였으며, 총 512명이 참여하였다.

3.3 변수별 척도

3.3.1 윤리의식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에 관한 척도는 Borys & Pope[30]가 개발하고 Yoo[31]이 활용한 척도를 사용했다. 관련 척도는 6문항, Likert 5점 척도이며, Yoo[3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10,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87였다.

3.3.2 직무만족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척도는 Guidubaldi & Cleminshaw[32]이 구성하고 Min[33]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했다. 관련 척도는 17개 문항Likert 5점 척도이며, Min[3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10,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83이다.

3.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 Adams[34]가 제작하고 Hong [35]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관련 척도는 16문항 Likert 5점 척도이며, Hong[3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60,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81이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과 통계는 SPSS & AMOS 25.0를 활용했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확인을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를 분석했다. 셋째, 주요변인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매개효과 분석모형은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의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4. 결과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을 통해 확인한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 여자 320명(62.5%), 남자 192명(37.5%)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로 20대 265명(51.8%), 30대 128명(25.0%), 40대 77명(15.0%), 50대 이상이 42명(8.2%)의 비율이였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512)

Division		N	%
Gender	Male	192	37.5
	Female	320	62.5
Age	20s	265	51.8
	30s	128	25.0
	40s	77	15.0
	50s~	42	8.2
Period	~1 year	34	6.6
	1~2 years	88	17.2
	2~3 years	105	20.5
	3~5 years	105	20.5
	5~10 years	102	19.9
	10years ~	78	15.2
Education	junior college	198	38.7
	college	145	28.3
	graduate school	99	19.3
	etc	70	13.7

다. 경력으로 2년에서 3년 미만과 3년에서 5년 미만이 각각 105명(20.5%), 5년에서 10년 미만 102명(19.9%), 1년에서 2년 미만 88명(17.2%), 10년 이상 78명(15.2%), 1년 미만이 34명(6.6%)의 비율이었다. 학력으로 전문대학 졸업 198명(38.7%), 4년제대학 졸업 145명(28.3%), 대학원 졸업 99명(19.3%), 기타 70명(13.7%)의 비율이었다.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Table 2을 통해 확인한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윤리의식 평균 3.784(SD=1.040), 직무만족 평균 3.430(SD=.943), 자기효능감 평균 3.539(SD=.834)였다. 주요 변수들은 정규성을 보였다.

Table 2. Maj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Skewness	Kurtosis
Ethical Consciousness	3.784	1.040	-1.103	.503
Job Satisfaction	3.430	.943	-.259	-.355
Self-efficacy	3.539	.834	-.817	1.237

4.3 상관관계

Table 3을 통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서 성별(남성=0, 여성=1)과 학력(고등학교 졸업/전문대학 졸업/기타=0, 4년제대학 졸업/대학원 졸업=1)은 더미처리했다. 연령과 경력은 빈도분석으로 구분한 내용과는 달리 설문 자체인 비율척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만족에 자기효능감(r=.790), 윤리의식(r=.788), 학력(r=.555), 경력(r=.520), 연령(r=.361)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1.	2.	3.	4.	5.	6.	7.
1.	1						
2.	-.091*	1					
3.	-.013	.615**	1				
4.	.036	.190**	.508**	1			
5.	.115**	.272**	.386**	.493**	1		
6.	.047	.372**	.459**	.436**	.695**	1	
7.	.081	.361**	.520**	.555**	.788**	.790**	1

1. Gender, 2. Age, 3. Period, 4. Education, 5. Ethical Consciousness, 6. Self-efficacy 7. Job Satisfaction

*p<.05, **p<.01

4.4 가설검증

4.4.1 타당성 검증

Table 4를 통하여 관측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복합신뢰도의 최소값이 .997로 허용치 0.7보다 높고, 평균분산추출지수의 최소값이 .978로 허용치 0.5보다 높아 관측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Table 4. Intensive validity verification

Division		β	S.E	AVE	C.R
Ethical Consciousness	1	.952	.016	.985	.997
	2	.944	.012		
	3	.900	.011		
	4	.950	.019		
	5	.935	.010		
	6	.918	.009		
Self-efficacy	1	.851	.015	.982	.998
	2	.893	.011		
	3	.904	.012		
	4	.891	.013		
	5	.897	.012		
	6	.877	.014		
	7	.886	.013		
	8	.879	.014		
	9	.910	.010		
	10	.884	.013		
	11	.871	.014		
	12	.894	.012		
	13	.853	.014		
	14	.847	.017		
	15	.824	.017		
	16	.836	.021		
Job Satisfaction	1	.845	.022	.978	.998
	2	.846	.019		
	3	.872	.019		
	4	.842	.016		
	5	.854	.019		
	6	.874	.019		
	7	.907	.013		
	8	.894	.016		
	9	.867	.016		
	10	.909	.014		
	11	.873	.015		
	12	.915	.014		
	13	.871	.022		
	14	.874	.019		
	15	.917	.012		
	16	.895	.015		
	17	.857	.021		

4.4.2 측정모델의 검증

Table 5를 통하여 확인한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chi^2=2740.889$, $df=636$, $p=.000$ 로 공분산행렬 간에 차이로 부적합하다. 그러나 χ^2 은 표본 크기에 영향이 크기에 절

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고려했다. 그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SRMR=.027, 증분적합지수인 NFI=.908, TLI=.923, CFI=.929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Table 5. Model fit

χ^2	df	p	SRMR
2740.889	686	.000	.027
NFI	TLI	CFI	RMSEA
.908	.923	.929	.077

4.4.3 구조모델 분석결과

Table 6을 통하여 확인한 검증결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윤리의식과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으로 윤리의식($\beta=.469$, $C.R=12.490$, $p<.001$)과 자기효능감($\beta=.467$, $C.R=12.111$, $p<.001$)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짐을 확인했다. 또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윤리의식($\beta=.712$, $C.R=17.915$, $p<.001$)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확인했다.

Table 6. Verification result

Division		B	β	C.R.
Self-efficacy	← Ethical	.506	.712	17.915
	← Consciousness	.393	.469	12.490
Job Satisfaction	← Self-efficacy	.551	.467	12.111

4.4.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Table 7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했다($\beta=.333$, $p=.005$). 매개효과 검증은 AMOS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했다.

Table 7.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

Sobel Test	β	p
Ethical Consciousness → Self-efficacy → Job Satisfaction	.333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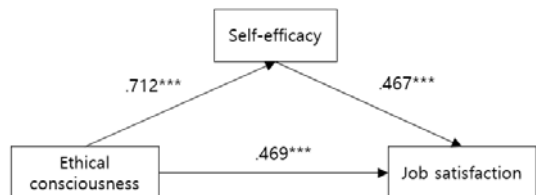


Fig. 2. Research result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와 요약과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윤리의식의 영향을 확인했다($\beta=0.469, p<.001$). 이는 선행연구 연구(11, 12, 20-24)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증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윤리의식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윤리의식의 영향을 확인했다($\beta=0.712, p<.001$). 이는 선행연구(25-28)를 지지한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윤리의식을 통한 사회복지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확인했다($\beta=0.467, p<.001$). 관련 결과는 선행연구(12,29)를 지지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증진을 위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보여준다. 즉,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을 통한 직무만족 증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과 직무만족사이에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했다($\beta=0.333, p<.01$). 이는 윤리의식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17,18)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증진을 위하여 윤리의식과 자기효능감을 함께 고려한 사회복지 실천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마련 및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무만족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매년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수교육으로 윤리교육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교육시간이 짧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합한 내용을 모두 전하기 어렵다. 이는 보수교육

강사의 기술과 전문성 그리고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다양성을 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례와 개입방안을 안내하는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실천이 가능한 윤리 연구 및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윤리적인 실천을 이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지원과 환경 마련이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과 학교 및 학회에서는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자기효능감을 바라보며 사회복지사의 욕구를 파악하고 현대에 필요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사람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지원에 관한 제도와 환경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할당표집방법으로 전국 규모가 아닌, 서울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윤리의식만으로 독립변수를 한정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보다 다양한 변인을 확인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조사를 활용하여 횡단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제한점이 있기에 종단적인 연구를 통한 후속연구 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한계에서도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증진을 위해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 [1] Y. G. Kim. (2020). COVID-19 and the social welfare center's response and tasks. *Monthly Welfare Trends* 262, 10-20. DOI : 10.1016/j.chiabu. 2020.104716
- [2] H. J. Ju. (2020). Exploring public welfare services and joint production practices: Focusing on customized welfare projects in

- Eup, Myeon, and Dong.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2(3), 69-108.
DOI : 10.22944/KSWA.2019.21.1.004
- [3] H. J. Ju & S. G. Lee. (2018).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of social welfare officials on job stress and job burnout. *Research Report* 20(3), 69-99.
- [4] M. I. Kim., H. L. Shin., M. A. Lee. (2019).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level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orkers: Verification of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of human rights security.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1(1), 83-104. DOI : 10.22944/KSWA.2019.21.1.004
- [5] G. H. Kang & J. H. Son. (2012). The effect of job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orkers. *Korean Society for Computer Information* 17(9), 171-179. DOI : 10.9708/JKSCI/2012.17.9.171
- [6] M. M. Choi., B. R. Hwang., G. D. Kim., W. Kim., S. G. Ryu & S. M. Lee. (2019).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Code of Ethics for Korean Social Workers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1(2), 171-202. DOI : 10.22944/KSWA.2019.21.2.007
- [7] E. G. Bae., S. S. Choi., H. J. Shin & J. S. Kwan. (2015).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context of time use experienced by social workers.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7(3), 193-227. DOI : 10.22944/KSWA.2015.17.3.008
- [8] M. G. Lee & Y. J. Choi. (2018). Experience of social workers' intervention in mental health services at the Home Elderly Support Service Center. *Welfare Research for the Elderly* 73(4), 151-179.
- [9] D. S. Chun & Y. M. Ryu. (2021).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Focusing on Organizational Fairness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Public Social Studies* 11(3), 215-240.
- [10] S. O. Kwan. (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Officer Social Welfare Officer's sense of calling on Job Enthusias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 Information* 21(9), 121-126.
- [11] T. R. Kim & G. H. Kim. (2017). Effect of social worker's ethical consciousness on job satisfaction.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9(2), 131-159. DOI : 10.22944/KSWA.2017.19.2.006
- [12] J. D. Oh., D. Y. Jung & S. H. Choi. (2017). The effect of ethical leadership on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Local Government Research* 21(3), 207-232.
- [13] J. G. Lee. (2020).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social work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Technology* 21(11), 455-464.
- [14] B. R. Lee. (2021). Mediated effect of job satisfaction in relationship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Center for the Handicapped professionals in the parameter. *A Study on the Digital Convergence* 19 (7), 391 to 396. DOI : 10.14400/JDC.2021.19.7.391
- [15] T. H. Kim & I. B. Song.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perceived by workers at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isability and Employment* 29(2), 165-189.
- [16] Y. J. Ryu. (2020). The Effect of Social Worker's Professional Identity on Happi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Wellness Society* 15(1), 357-366. DOI : 10.22944/KSWA.2017.19.4.002
- [17] J. W. Choi. (2009).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of elderly medical workers. Ph.D. thesis at Daegu Oriental Medicine University.
- [18] Y. R. Ryu., M. S. Kim & Y. M. Bae. (2018).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Social Welfare Supervision in Elderly Living Facilities.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0(1), 107-149. DOI : 10.22944/KSWA.2018.20.1.005
- [19] H. J. Kim. (2020).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f social workers on job satisfaction through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ntents* 20(3), 49-58. DOI : 10.5392/JKCA.2020.20.03.049
- [20] Y. S. Jin & Y. J. Ryu. (2017). Effect of ethical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on

- turnover intention.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9(4), 33-55.
- [21] S. Y. Lee & E. S. Jung. (2019). The effec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of social workers on job satisfaction through self-elasticity. *Social Welfare Management Research* 6(2), 59-80
- [22] G. H. Kim. (2019). The effect of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 Multimedia Paper on the Convergence of Art and Humanities* 9, 897-915.
- [23] H. Y. Kim & Y. M. Kim. (2011). The effect of Korean social workers' perception of ethics and professionalism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Northeast Asian Non-Chong of Korea* 58, 209-232.
- [24] M. K. Bang. (2021). Human rights awareness and social welfare marketing research. A Ph.D. thesis at Baekseok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Christianity.
- [25] S. E. Nam., S. G. Nam & M. E. Nam. (2006).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by factor on overall job satisfac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orkers.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Korea* 58(3), 195-221.
- [26] B. G. Park & S. Y. Jun. (2006).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leader's transformative leadership on the capacity building and self-efficacy of social workers in social welfare practice.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58(4), 341-369.
- [27] H. J. Jun & D. Y. Lee. (2016). A multi-layered analysis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areer commitment of social work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ntents* 16(1), 190-203.
- [28] H. J. Jung & Y. W. Kim. (2019). A Qualitative Study on Empowerment Practice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Focusing on the Dilemma of Theory and Practice. *Health and Welfare* 21(4), 169-203.
- [29] S. H. Kim & J. B. Yang. (2017). The effect of coping strategies and job efficacy on job burnout of social workers in nursing hospitals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ntents* 17(3), 350-358.
DOI : 10.5392/JKCA.2017.17.03.350
- [30] Borys, D. S & Pope, K. S. (1989). D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rapist and client: A national study of psychologists, psychiatrists and social worker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0(5). 283-293.
- [31] J. S. Ryu. (2010). Effects of social workers' ethical awareness o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social workers in Gyeonggi-do. a master's thesis at Kyu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32] Guidubaldi, J & Cleminshaw, H. K.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satisfaction Scale.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San Diego: Academic Press. 257-277.
DOI : 10.1016/B978-0-08-091820-4.50016-7
- [33] S. Y. Min. (2016). Analysis of the path between social worker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case protect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 doctoral dissertation at Kyu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34] Sherer, M. & Adams, M. E. (1983). Constructs validation of the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3, 899-902.
DOI : 10.2466/pr0.1983.53.3.899
- [35] H. Y. Hong. (1995).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A Master's thesis at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박 종 두(Jong-Du Park)

[정회원]



- 2008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12년 8월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21년 2월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행정학박사)

- 2022년 12월~현재 :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 관심분야 : 장애인, 지역복지
- E-Mail pjd7777@hanmail.net

석 말 숙(Mal-Sook Suk)

[정회원]



- 1987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8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1998년 12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School of Social Welfare (M.S.W)

- 200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4년 9월~현재 :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 가족
- E-Mail : swmalsuk@kornu.ac.kr